

이성해 대광위원장 “신안산선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개선 큰 역할” 강조

- 9일 신안산선 건설현장 찾아 적기 개통·안전사고 예방 철저 주문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9일(목)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신안산선 건설현장을 점검하였다.
 - 신안산선은 「광역교통시행계획」을 기반으로, '20년 4월 착공하여 '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으로,
 - 경기도 안산·시흥·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총 44.7km 구간(y형)*에 총사업비 4조 3,055억원이 투입되며, 민간투자사업(사업자: 넥스트레인(주), BTO-rs)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.

* 한양대~여의도(30.7km), 시흥시청~광명역(10km), 송산차량기지~서해선 원시역(4km)

-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“신안산선은 그동안 안산, 시흥 등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인 만큼, 주민들과 약속한 '25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”라며,
 - “이 노선이 완공되면 안산,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운행할 수 있고, 서해선, 월곶~판교선, 인천발 KTX 등과 연계되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개선에 독특한 역할이 기대된다”라고 하였다.
 - 또한, “지난 5일부터 산불 위기경보가 '경계단계'로 상향된 만큼 현장에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,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라고 주문하였다.
- 끝으로, 이 위원장은 “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 신경 써달라”라고 당부하였다.

2023. 3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